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창



송종규 명예권사

오후 두시의 화분에는 빛들의 어린 앞니,

나는 낡은 문턱에 걸터앉아 있고 빛들은 무한정 확장되어 간다네

구름은 이곳에서 가장 먼 풍경

꽃이 보고 싶은 누군가 블라인드를 올리고
유리창은 바람이 쓴 필기체로 자욱해지네

지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들꽃과 구름과 내 방의 작은 창
어둡고 아픈 사람의 후미진 마음까지

크고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

활짝 핀 봄날, 나는 기다리네

빛들의 어린 앞니가 커다랗게 자랄 때까지
홀연히,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인 송종규

『심상』으로 등단

시집: 『고요한 입술』, 『녹슨 방』
『공중을 들어올리는 하나의 방식』

대구문학상, 대구시문학상
애지문학상, 올해의 좋은 시상
이상시문학상 수상

계간 『시인시대』 편집인

시 이야기

송종규 시인은 명예권사님입니다. 시를 받는 순간, 아! 탄성이 절로 났다. 찬란한 봄날을 어쩔 저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노래할 수 있는지 부러웠다.

시인이 바라보는 창밖에는 빛과 바람으로 퍼덕이는 나뭇잎이 어린 앞니처럼 귀엽게 살랑인다. 작은 시인의 방을 찾아든 아기가 같은 나뭇잎은 봄이 가져다준 복된 위로이자 소망이다.

창 너머 펼쳐지는 어린 앞니 같은 나무 잎새를 보면서 시인은 4월이면 왜 어김없이 부활절을 지키는지 알 듯하다. 4월이 되면 시인의 예민한 감성은 연한 순 같은 나뭇잎과 부활의 소망이 교차 되는 광경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창가에서 선 시인으로서 작은 잎새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루듯 주님으로 충만된 자신의 또 다른 부활의 기도를 지금 여기에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주하 편집위원)

권두언	02	김준호 담임목사	또 하나의 연결고리
새가족소개	04	새가족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큐티 소그룹 인도자 훈련	06	전귀옥 집사	대구제일교회 부부소모임 큐티 소그룹 인도자 훈련
새가족 글	08	이중언 성도	어머니가 계신 천국 소망 안고 신앙생활 하렵니다
	10	박태훈 성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신임 교역자 소개	12	윤정용 목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역을 준비하며
	13	신에덴 전도사	하나님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고별인사	14	이정이 목사	대구제일교회에 드리는 감사의 말씀
장학구제위원회	16	이현우 장로	경북 대형산불에 따른 긴급구제 활동 보고
의료봉사	18	의료선교부 의료봉사팀	영덕 산불재난지역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신앙시	19	강종호 은퇴장로	오너라 동무야
겨울성경학교 소감문	20	이가은 학생	초등1부] 잊지 못할 겨울성경학교 예수님의 사랑가득!
	21	장형석 선생	초등2부] 거인 Project!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록한 사람들
	22	이승찬 전도사	초등3부] 겨울성경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다
겨울수련회 소감문	23	박건희 학생	중등부] 낯설을 넘어 즐거움으로: 알차고 유쾌했던 수련회 후기
	24	구민아 학생	고등부] Love Wins All♡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6	김혜인 45기	청년1부] 품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27	남해리 28기	청년2부] 스울에서 건지신 하나님, 13년만에 참석한 감격의 수련회
청년코너	28	홍보출판부	청년들은 주말마다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걸까?
청빙위원회	32	임병규 장로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과정 및 결과 보고
고것이 알고싶다기/회/취/재	36	홍보출판부	Part. I 명랑청년,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되다
	42	홍보출판부	Part. II 새가족부를 소개합니다
	44	홍보출판부	Part. III 친교봉사부를 소개합니다
5분 독서	46	홍보출판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신앙에세이	48	윤길규 협동안수집사	우분투(UBUNTU)
	50	최진영 안수집사	골목길 돌아봐야 비로소 아는 인생길에서
	52	유대안 안수집사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 찬송시
미소 사진	54	홍보출판부	2010년 어린이주일 _ 교회학교 어린이들
신앙에세이	55	변정자 은퇴권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58	권중웅 명예집사	믿음으로써 의로워져 구원을 받으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신앙간증	60	우정복 원로장로	찬양에 대한 체현적 간증
CCM 추천 코너	63	최성민 전도사	나의 찬양 "전부"
단기선교	64	최정아 집사	네팔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66	홍보출판부	



김 준 호 담임목사
김 정 아 사 모

또 하나의 연결고리

생명은 연결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와 교회로 손을 잡아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작으로 세대와 지역과 이념을 넘어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댄동산 109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물댄동산 역시 서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이름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의 추억을 사진으로 마음을 이어주는 귀중한 책임입니다. 109번의 소리는 109번의 울림이 되어 서로를 연결해 주는 소중한 끈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댄동산 109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의 나눔과 홍보 출판부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고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09호를 맞이하지만 1호가 나왔을 때처럼 새롭고 산뜻하게 다가오는 물댄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물댄동산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효준, 주유화 _ 2교구 24구역



윤수지 _ 3교구 4구역



홍지윤 _ 3교구 12구역



김동하 _ 2교구 16구역



소영수 조순득 _ 3교구 25구역



손봉현, 이재관 _ 2교구 32구역



조준원 _ 1교구 1구역



김생곤, 홍은경 _ 3교구 13구역



배신호, 김경희 _ 4교구 32구역



최혜원 _ 2교구 19구역



김성은 오남경 _ 4교구 17구역



이상민 정민지 _ 4교구 35구역

Welcome! New Family



위민제 _ 2교구 19구역



이인학 _ 1교구 4구역



김승은 _ 4교구 7구역



김세은 _ 2교구 23구역



박혜원 _ 2교구 7구역



임동길, 유승혜 _ 1교구 6구역



정연주 _ 4교구 13구역

대구제일교회 부부소모임 큐티 소그룹 인도자 훈련



전귀옥 집사

장규현 목사님의 지도 아래, 2024년 12월 8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8주차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어미 새(이승현, 최미향)의 품을 떠나 새로운 둥지를 준비하기 위한 12명의 아기 새들이 첫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다.

소그룹 인도자 훈련은 의도적으로 영적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생명체로의 재생산인 것이다. 준비물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새로운 둥지에서 함께 하게 될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들을 세워가는 균형잡힌 사랑 - 경청과 격려, 배려와 섬김** 등이다.

형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주님 말씀에 굴복시키며 "하나님(나의 왕, 나의 주)과 나" 창조된 본래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말씀 순종으로 답을 찾아가는 순종과 인고의 시간

2. 이 생명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말씀에 비추어 교정하며, 친밀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섬김의 단계

3. 삶과 삶이 조울을 이루는 성장이의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훈련" 과정을 배웠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한 명씩 "나를 따라오라" 명하시고, 전인격적인 교육방식으로 훈련하셨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시며, 존재하도록 세워가시는 방식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교회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바르게 예배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짊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짐을 나누고, 지극하게 품고, 인내하며 교회 속에 있는 아픈 지체를 찾아야 한다.

그들의 미흡함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시선을 두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품으며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한다. 죄된 속성과 나약함에 익숙해진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내 속에 계셔줄 것을 고백하며 기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할 때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직도 내 입술과 귀와 눈과 마음이 주님을 닮지 못하여 멀기만 한데,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여 참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부부소모임 큐티 소모임 인도자 훈련 후기를 남긴다. | 물대방산



어머니가 계신 천국 소망 안고 신앙생활 하렵니다...



이종언 성도

일대일 양육 교육의 막바지에 간증문을 한 번 써보라는 얘기에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간증문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간증이란 어떤 기적적인 삶의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보질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가식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양육 교사이신 장희숙 권사님이 교회 출석 후 변화된 삶을 솔직하게 써보라는 조언에 용기 내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는 2023년 9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미 오랫동안 대구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소원에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예배를 몇 번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그때마다 억지로 끌려가서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교회 출석하자는 아내의 설득이 계속되었음에도 그때마다 저는 "내 발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라."라며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이라고 외치며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법적 종교관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없는 저희 집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챙기는 아내를 보면서 교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생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머님 천국 가셔야 된다'며 세례도 받게 하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지금 어머니는 교회 '부활 동산'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 때 임종 예배, 발인 예배 등을 위해 목사님들이 애쓰시는 걸 보고 차츰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특히 발인 날 교회 분들이 오셔서 운구와 찬송을 불러 주실 때 그 마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가실 천국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생 교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님께 너무 죄송할 것 같아, 천국이 있다고 아니 꼭 있어야만 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퍼스트 스텝」 프로그램에 아내가 등록해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받은 고마움 때문에 된

가 해야 할 것 같아 별다른 거부감 없이 5주의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부터 처음으로 1부 예배를 스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열기에 1부 예배는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제게는 다른 나라 언어로 들리는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 통독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는 이걸 꼭 읽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해는 안되더라도 글자만이라도 읽자는 마음으로 계속 읽은 결과, 5개월 후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설교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별 차이가 없었지만, 다만 통독 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아! 그런 내용이 있었지”라며 어렴풋이 말씀이 기억나곤 했습니다. 문맹인 사람이 한글을 처음 깨치고 거리의 간판들을 볼 때 아는 글자가 한두 개쯤 보이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변화라고 굳이 말한다면 주일 1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지 않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이젠 없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든지 어떤 기적을 봤다든지 하는 경험은 아직 없지만 요즘 따라 부쩍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평소에도 좋아했던 말이지만 요

즘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 스텝」에서 처음 들었던 질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입니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한낱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오늘도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10주간의 일대일 양육교육을 마치고 나니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익숙지 않은 기도 방법도 양육 교육에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울 때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기도를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주기도문에 맞춰 체계적으로 하는 기도방법은 양육 교육에서 배우게 된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뭔가를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소원보다 서원(誓願)을 먼저 아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誓願)의 사전적 의미는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쑥스러워서 속으로 중얼거리듯 기도를 하지만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서원해 봅니다.

끝으로 제 시간에 맞춰 교회가 아닌 저희 가게로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양육교사 장희숙 권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태동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박태훈 성도

대구제일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주차를 어떻게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던 우리 가족에게 주차 안내를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이 다가오셨습니다. 저희 차 안을 보시며 안내 집사님께서 "아기가 3명이네!!"라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주차하기 좋은 장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은 저희를 향한 뭉치 모를 따뜻한 배려가 추운 겨울바람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배려는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업고 안고 다니는 힘든 아내를 배려해 주는 마음들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본당 2층 새가족부로 안내받아 올라가니 괜히 어색하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가족부의 권사님들이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가만히 있질 못하는 저희 아이들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우셨을 텐데 불편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저희 아이들에게 과자를 내어주시며 이뻐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가 될 거 같은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주 동안

주님이 저희를 이끄시는 것처럼 저희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가족부로 인도 하셨습니다.

새가족 6주 동안 교육이 끝나고 그렇게 삼남매 "준희, 예원, 예은"의 제일교회 첫 영아부 출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영아부 예배는 그 분위기부터가 조금 달랐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하나같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고, 이름도 모르는 나를 향해 먼저 다가와 주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영아부 샘콩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영아부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영아부의 적응기를 잘 마친 삼남매와 광경주 선생님, 가끔 오는 보조 선생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지금껏 제가 절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삶의 주체며 나의 의지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교회를 잘 찾아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 같습니다. 처음 주

차 안내 집사님을 만난 순간, 새가족부를 만난 순간, 영아부 선생님들을 만난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제가 이곳 대구제일교회로 오게 된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어디를 갈지 모르던 나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전 직장 때문에 매주 경기도에서 대구로 내려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낼 주말과 예배를 기대하며 오는 것 너무 설렙니다. 어떤 보배보다 귀한 저희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할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을 매주 기대합니다. | 물대동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아시는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말씀.

아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역을 준비하며



윤정용 목사
(고등부 지도)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물댄동산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대구 제일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5년 3월부터 “예그리나 고등부”를 섬기게 된 윤정용 목사입니다. 오랜 기간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하시기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배라영)와 아들 하나(도진), 딸 하나(혜나)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경주남부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부임하여 부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사역하였고, 이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강 교회에서 행정 부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귀한 예그리나 고등부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대구 근교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엔 일을 밤에는 설교를 쓰고 사역을 준비하며 지내는 가운데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예그리나 고등부 지체들은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가지요. 주중부

터 주말까지 학교와 학원, 도서관과 독서실을 오가는 아이들은 피곤하여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주일에 교회를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눈빛이 살아 있고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앞뒤에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선생님들 또한 계시니 사역하는 한 주, 한 주가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고등부가 되도록 기도과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게 사역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아가며, 자신의 신앙고백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예배와 사역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댄동산





신에덴 전도사
(영아부 지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부터 대구제일교회 영아부에 부임한 신에덴 전도사입니다. 대구제일교회 영아부에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 대구경북에서 쫓 자라고 지내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여 20대 때는 경북권을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한 때는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했으나 돌고 돌아 대구댁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결혼하여, 사랑하는 신랑과 이제 갓 40여 일 된 다니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 잘 때가 가장 예쁘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깊이 공감되면서 정신없이 울며 자신을 표현할 때는 과연 어떤 캐릭터의 아이일까 기대가 되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아이에게 본이 되는 부모로, 그리고 아가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 사역지는 신암교회 유치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부 3학년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었는데,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매주 양손 가득 준비한 짐보따리를 들고 경산에서 동대구까지 어두운 가로등 불빛을 뚫고 새벽 첫차 버스를 한 번 갈아타 1시간가량 타고 가야 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았지만, 단 한 번

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에 열정은 가득한데 아주 부족하고 서툴렀기에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 올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었기에 더욱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첫 사역을 준비할 때의 기억이 새록 새록 떠올랐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걱정도 되었지만, 걱정했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교역자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으며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대구제일교회에서 기도로 함께 동역하며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댄동산

대구제일교회에 드리는 감사의 말씀

- 고등부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정이 목사
(대구제일고등학교 종교교사)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제일교회 고등부를 2018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섬겼던 이정이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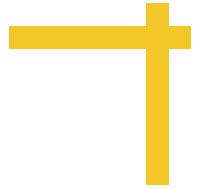
제 인생에서 대구제일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구제일교회의 유치원을 졸업하였고, 신학교 1학년 스무 살 시절에는 유년부를 교사로 섬기며 교회를 위한 작은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오게 되며 저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목사 안수를 대구제일교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저의 아버지께서도 목

사 안수를 받으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욱 뜻깊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7년 넘게 고등부 담당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교회의 파송으로 경북예술평화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더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아이들의 삶과 아픔,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요기도회와 주일 오후예배 찬양 인도를 맡으며 부족한 저를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크나큰 은혜요 기쁨이었습니다. 찬양에 능하지 못한 저를 끝까지 도와주신 금요 찬양팀, 오후 예배 엘피스 찬양팀께는 고맙고도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의 여러 도움과 기도 덕분에 교목 사역 중에 교직 이수를 마칠 수 있었고, 그 은혜로 2025년 3월부터 대구제일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는 중 여러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구제일고등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교무 회의 시간에 교직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며, 수요일에는 신우회 예배,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스쿨처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이 아이들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입니다). 또한 전교생이 함께하는 활동으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간식을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부활절 예배도 교회의 도움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지어진 대구제일고등학교 건물에는 교목실이 학생 교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쉬는 시간마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쉬고 머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탕 몇 개를 받으러 들렀다 나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은 많지 않은데, 한 반에 한두 명이 겨우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반은 단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 교목실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이 학교 현장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삶으로 전해질 길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많은 관심과 염려로 함께 해주시고, 가능하실 때에는 교목실에도 한 번씩 방문하셔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길의 시작점과 과정 속에 대구제일교회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음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역에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 위에 더욱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문대현동산

경북 대형산불에 따른 긴급 구제 대구제일교회 장학구제위원회 활동 보고

- 위원회: 이현우, 박근배, 강영우, 이준옥, 주기성 장로



이현우 장로
(장학구제위원회 위원장)

- | | |
|--------|---|
| 3월 22일 | 의성군 단촌면에서 산불이 시작. 건조한 환경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덕, 울진 등으로 산불이 확산. |
| 3월 27일 | 장학구제위원회는 이재민들을 위한 신속한 구제를 의결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 |
| 3월 30일 | 임시 당회 소집. 부활 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의결했으며, 차후 일정과 방법은 장학구제 위원회에 위임. |
| 4월 2일 | 포항 노회 북시찰장 영해교회와 축산교회를 거점으로 영덕 지역 피해 지역을 확인한 후 구호 물품 세트를 전달. |
| 4월 3일 | 경안 노회 안동, 의성 지역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의류 세트 및 양말을 주문.
- 주일 예배 시 영상 광고로 피해 상황을 보고 |
| 4월 11일 | 영덕 지역에 의류와 양말 등 구호 물품을 직접 전달. |
| 4월 12일 | 안동, 의성 지역에 자원봉사 및 구호 물품(청년부 봉사, 침구, 의류, 양말 등)을 직접 전달. |
| 4월 13일 | 의료선교부에서 영덕 의료 봉사를 진행. 영덕 청소년 해양 센터에서 의료진 19명이 현장 103명을 진료하고, 보행기 등을 지급. |
| 4월 20일 | 부활절 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지급 준비 완료(총 8천만 원) |
| 4월 27일 | 의성 하화교회, 안동 신덕교회, 안동 임하교회, 영덕 화전교회, 영덕 경정교회, 영덕 오천교회 등 6개 교회에 각 1천만 원씩 구제비 지원을 결정. |

"부활의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온 교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제 내용]

- 공장도 원가로 총 2,0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
침구류 (이불, 요, 베개 세트) : 200세트
의류 (상, 하의 세트) : 657벌, 양말 : 2,000켤레
- 피해 교회 구제 : 6개 교회에 총 6,000만 원을 지원
- 현재 구호 활동 금액 : 8천만 원 (80,000,000원)
- 현장 방문을 통한 자원봉사 예정 | 물대동산





의성 하화교회 교회 전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수일하길 31]



안동 신덕교회 사택 전소 [경북 안동시 임하면 범바위길 25]



안동 임하교회 사택전소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산299]



영덕 산불재난지역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의료선교부 의료봉사팀]

지난 2025년 3월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약 9만 9천 헥타르의 산림을 소실시킨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특히 영덕군은 최초 발화지에서 불과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던 까닭에 산림이 소실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의료선교부는 2025년 4월 13일 주일, 영덕을 방문하여 말로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봉사 장소인 영덕 국립해양청소년센터를 향하여 오전 9시경 교회에서 출발하였는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고속도로 양쪽으로 불에 탄 산림과 가옥이 많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내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6명, 간호사 5명, 약사 3명, 간호학과 학생 1명, 행정지원 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구제일교회 의료선교부 봉사단은 영덕 국립해양청소년센터 세미나실에서 저녁 8시 40분경까지 진행된 봉사를 통하여 총 103명의 화재 피해 지역민을 진료하였습니다.

기본 건강 검진,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의 내과 진료, 안과 질환 검진 및 투약,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상담, 산불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진료 등의 전문 진료를 실시하였고 필요한 약품 또한 처방하였습니다.

진료 결과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급박했던 대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이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긴장과 피로 속에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 진료 외에도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영덕군보건소에 어르신 보행기 10대를 기증하였습니다.

이번 대구제일교회 영덕 산불재난지역 의료봉사는 예기치 못한 큰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서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물대동산

오너라 동무야



강종호 은퇴장로

오너라 동무야 강산에 가자

띠 띠고 어서 가자

새 우는 이 봄을 노래하자

이른봄 단비 마을에 내리니 (早春甘雨 下村中)

만물이 이와 같이 살아나니 (萬物如斯 皆得活)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 어찌 없으랴! (施恩上宰 豈無功)

왔도다~~ 봄이 왔도다~~

농부여 깊이든 잠에서 깨어나라

포국~ 포국~ 새 우는 저 소리

밭 갈고 심우기를 재촉함일세

일 년에 재(再)봄춘은 결코 없나니!

註 심우기: 아주 많이 비가 내리는 시기



잊지 못할 겨울성경학교: 예수님의 사랑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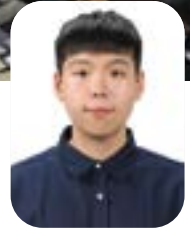


이가온 학생
(초등1부)

항상 성경학교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학교에서는 더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지고, 프로그램과 게임들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죠. 어느 때보다 예배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간식들도 맛있고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뱃줄 당기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들도 정말 신이 났어요. 말씀과 성경 학습을 통해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앞으로 저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살고 싶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놀고, 맛있게 먹으며 친구들과 보낸 겨울성경학교를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성경학교를 어떻게 또 기다리지?' 하고 기대해 보아요.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참여했더니 결국 우리 조가 1등을 하게 되어, 무지 갖고 싶었던 카피바라 인형을 선물로 받았지 뭐예요? 예수님의 선물일까요? 어쨌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엔 꼭 함께 참여해욤~~^^ | 문태민동산





장형석 선생
(초등2부)

거인 Project!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

꽃들도 봄옷을 꺼내 입고 어느덧 봄 내음과 각자의 새로운 시작들이 몸에 배어가는 계절 가운데 아이들이 무사히 성경학교를 마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시에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지만 아이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로 성경학교는 꽤 더운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성진 목사님께서 '거인 Project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크게 예배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실제로 이후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의 참여도와 기도의 집중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이 마주함을 느꼈습니다. 성경학교 도중 예배가 지루할 틈이 없이 조별 모임, 단합 게임, 선택 학습 등으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과 한 팀이 되어 더욱 끈끈한 유대를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첫날 일정을 마치고, 둘째 날은 기독교역사관으로 아이들에게는 유익하지만 다소 따분한 시간을 보낸 뒤 크레이지 팡팡이라는 실내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뛰었는데 제가 선생인지 아이인지 잊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있을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과 즐거웠던 기억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 속 즐거웠던 하나님과의 기억으로 남았을 것을 확신하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댄동산**

- 왼쪽 상단 QR 코드에 겨울성경학교 후기 영상이 있습니다.



겨울성경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다



이승찬 전도사
(초등3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커스는 말씀 선포에 있었지만, 아이들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아래와 같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초등3부 친구들의 질문

- 전도사님 성경에는 공룡이 등장하지 않는데 전도사님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도사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 전도사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알려주는데 성경은 왜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 전도사님 우주 폭발로 만들어진 빅뱅 이론이 맞아요? 아니면 창조론이 맞아요??
- 전도사님 창세기를 만든 사람이 직접 창조를 보고 적은 거 맞아요??
-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한 번에 하신 게 아니라 6번으로 나누어서 하신 거예요??
- 전도사님 하나님도 시간에 제약이라는 것을 받는 분이예요??



이 외에도 초등3부 친구들의 궁금증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성경의 선포와 학교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과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울 성경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과 네이처파크 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동물과 새로운 자연환경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에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다음번 성경학교도 아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물댄동산**



박건희 학생
(중등부)

낮섬을 넘어 즐거움으로 : 알차고 유쾌했던 수련회 후기

처음에는 친한 사람도 없어서 괜히 왔나 긴장했는데 친절한 선생님들 덕분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들도 다 재미있었습니다. 그중 질문받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웃긴 질문도 많았고 깊이 생각해 볼 질문도 많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음악 공연도 재미있었습니다. 찬송 노래가 이렇게 신나고 좋은 노래들이 많은지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악 공연에서 선생님께서 강의도 재미있게 해주셔서 지루하지 않았고, 이때 알게 된 가수분의 인생 이야기와 그 노래들이 참 좋았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 나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교회에 늦게 돌아와서 피곤했지만, 재미있던 프로그램이 많아 프로그램을 들었던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스파밸리에서 돌아올 때는 피곤하긴 했지만,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니 재미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 문태동산





Love Wins All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민아 학생
(학생회 부회장)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올해 고등부의 주제인 “Love Wins All♡”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아닐까?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3년 내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에는 통상 2박3일 하던 수련회를 1박 2일로 진행하여 많이 아쉬웠다. 각 학교의 방학이 시작하는 시간, 학원들의 특강 시간 등이 너무나 달라 수련회 날자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목사님의 고충을 듣기도 하였다. 비록 수련회 기간이 짧았지만, 더 알차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것 같았다. 참여 학생들이 너무 적어 빙상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시작 예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수련회의 모든 시간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다. 찬양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예배가 진행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번 수련회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수련회 기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회



김종원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내 안에 있던 고민과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친구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예배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친구들과 과의 교제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Love Wins All”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랑을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고, 세상 속에서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 물대동산

2024 대구제일교회 베그리나 고령부 겨울수련회 일정표

시간	2월 7일(금)	2월 8일(토)
10:00		찬 양
11:00	Love Wins All	사랑의 5가지 언어
12:00	영양식/영양사 후 교제로 헌신	영양식사
13:00	송혜은 목사 30분강화	찬 양
14:00		공동체헌신
15:00	동 록	Love Wins All
16:00	시작작별	영양강조로
17:00	레크리케이션	
18:00	Love Wins All	
19:00	제대식사	
20:00	찬 양	Love Wins All
21:00	말씀, 공동체 헌신	
22:00	영양	



품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의 깊어진 동행



김혜인 45기
(청년1부)

이번 겨울 수련회는 정말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품공동체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릅니다. 수련회를 통해 얻은 것들과 느낀 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이번 수련회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 시간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동안 잊고 있던 내면의 소리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의 말씀 묵상은 제 신앙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저도 모르게 미워하였던 친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동안 교제의 시간을 통해 신앙의 힘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미나와 집회에서 들은 말씀은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빼고 더해야 할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 결실에 대해 생각해 보며 소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제 신앙이 한층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보면, 그동안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물댄동산**



서울에서 건지신 하나님, 13년만에 참석한 감격의 수련회



남해리 28기
(청년2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28기 남해리 청년입니다. 13년 만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곧 수련회 때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조심스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대학 졸업 이후 교회와 완전히 멀어졌고 어느새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23년도 3월에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서울에서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여러 번 만나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체할 수 없었기에, 때마침 열리는 수련회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워십팀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중 오후까지는 일을 하고 퇴근 후 저녁에는 워십팀으로 수련회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열정을 주셨습니다.

띠동갑 동생들과 워십팀을 섬기며,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회심하여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복잡 미묘한 기쁨도 느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 (전 12:1) 세상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년의 때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수련회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섭리의 수레바퀴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바나바였던 노선희 권사님, 대예배 참석만 가끔씩 하던 저를 기도와 심방으로 챙겨주신 이태연 목사님과 손성진 구역장님, 그리고 늘 관심 가져 주시는 최윤정 순장님까지. 이 네분을 통해 청년부에 정착하게 하셔서, 수련회의 감동을 13년 만에 느끼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물뎀동산

The PLUS

Power of the

Holy Spirit

메스겔 37:14
사도행전 9:31



청년들은 주말마다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걸까?

매주 토요일, 시계가 오전 10시 30분에 가까워질 때면 지하 1층을 향하는 계단에서 황급히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두다다

품공동체 일꾼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들의 친구들은 묻는다.

"너는 주말마다 뭐해?"

"나? 교회가"

"교회 가면 뭐해?"

"이것 저것 하지"

1년은 52주, 명절을 포함한 몇 주를 제외하고는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본당 지하 1층에 모이는 청년 일꾼들이다.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시험공부하는 와중에도, 회사 다니는 이들은 오전에 교회에 들렀다가 점심도 못 먹고 부리나케 출근하러 가기도 한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품공동체의 일꾼은 현재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님들을 포함하면 총 37명이다. 순수 청년 일꾼들은 33명인 것이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그렇다.

물론 공식적인 일정이거나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일정이 생기기도 하기에 모든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기에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꾼 모임이다. 《때때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체 휴가를 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 말이다》

일꾼이란

일꾼은 임원, 리더, 사역 팀장을 말한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로 구성되며 청년부의 모든 운영과 활동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추진하며 결정한다.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하니 회의를 해도 해도 끝이 없다. 9-10월쯤 되면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며 이는 청년부 정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 선출된 임원들은 10월부터 두 달간 인수인계를 받고 이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리더는 G.B.S(Group Bible Study)인 신앙 소그룹(청년부 내에서는 '뽕'이라고 자칭한다)을 이끌어 가는 이들이다. 청년부에 등록하는 모든 이들은 이 '뽕'에 배정이 되며, 예배 후 각 뽕이 여러 장소로 뿔뿔이 흩어져 G.B.S를 진행한다. 모임은 대략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말씀에 대한 나눔과 결단,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눈다. 여는 교회 청년부들은 성경 모임 자체가 없거나, 주로 친교 위주인 곳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흩날 듯이 각자의 뽕으로 간다. 과연 대구제일교회 품공동체의 최고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사역 팀장은 팀원들과 각 사역팀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때때로 공동체 전체 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총 7팀으로 예배팀, 문서팀, 찬양팀, 미디어팀, 양육팀, 선교나눔팀, 새가족팀으로 구성된다. (다음에는 청년부의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 소재를 다뤄 봐도 좋겠다.)

일꾼 모임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매해 연말, 이듬해 일꾼이 모두 꾸려지면 1월에 '일꾼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일꾼 캠프는 일꾼 수련회 + 연석회의로 새로이 세워진 이들이 함께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공동체 연간 계획을 공유하고 다듬어가는 시간이다.

임원/리더/팀장들이 미리 PPT를 준비하여, 각자의 개성대로 팀 발표를 이어 나가는 모습들이 꽤 멋지고 재미 또한 쏠쏠하다. 그렇게 연간 계획을 공유하고 나면, 매주 일꾼 모임에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된다.

일꾼 모임은 목사님과 성경 공부로 시작된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눈다. 앞서 말한 품에서 하는 GBS를 일꾼들이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리더들이 일꾼 모임에서 공부한 대로 GBS를 인도하며, 각 품은 목사님의 지도하에 리더의 지도력으로 운영된다.)

성경 공부가 마무리되면, 예배 및 월별/분기별 공동체 일정을 함께 공유하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눈다. 이는 공동체 전반적인 일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역팀별 일정이 될 수도 있다.

이후에는요?

일꾼 모임을 모두 마치면 각 사역팀별 필요한 부분을 함께 돕기도 하는데 선교나눔팀의 쪽방 나눔 사역의 물품들을 함께 실어 나르기도 하고, 예배팀의 예배당 환경 조성을 돕기도 한다. (일꾼 모임을 마쳐도 이후에 임원, 리더, 사역팀별 회의나 각자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때도 많기에 마쳤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겠다.)

때때로 절기 등 교회 전체적인 일정을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활주일 계란 포장과 나눔, 한혈 동참 캠페인, 어버이주일 꽃 달기, 성탄절 감사 공연 스텝 등 이 있다.



2025 일꾼 캠프



토요 일꾼 모임





제3회 품어워즈 (2024)



일꾼은 어떻게 뽑을 수 있나?

우선, 공동동체에 등록된 정회원이며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임원은 투표 및 지명에 의해 선출되며, 리더는 리더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원들과 지도 교역자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사역 팀장은 지도 교역자 및 현 사역 팀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일꾼은 가급적 겸임을 피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협의를 통해 같이 하기도 한다. *임원/리더/팀장이 아니더라도 사역팀의 팀원으로 공동체 활동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면 팀장에게 꼭 연락해 보시길

꾸러기는 꾸러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물론! 계속해서 힘을 쏟아내기만 하면 힘이 나기 쉽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매년 성탄절이 있는 주일마다 한 해를 걸은 일꾼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소소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품어워즈'라고 해서 여느 시상식 못지 않게 모두가 함께 즐겁게 누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즐거움의 한 요소로 드레스 코드를 가미한다. 특정 '색'을 넣어 오는 것이다. 작년에는 '노랑(또는 골드)'이었다. 덕분에 아주 화사했다.



각 테이블에는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맛있는 간식거리들이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게임, 청년부를 졸업하게 되는 이들의 졸업식, 일꾼 시상식 등 함께 한 해를 보내온 소감을 나누기도 한다. (실은 일꾼 시상식을 통해 자체들의 '일꾼'에 대한 참여 욕구(?)를 이끌어내기 위함도 있다는 것은 비밀이다)



결론

마음은 늘 청년 같을지라도,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리 걷잡을 수 없는 이 때, 모두 뛰쳐나지 않으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남이지고 훈련되길 거듭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꾼으로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느려 보일지라도 이 시간이 커켜이 쌓여 우리를 거뜬히 살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글 및 편집 / 광지예, 김원진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과정 및 결과 보고



임병규 장로
(청빙위원회 위원장)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된 청빙 여정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4년 6월, 담임목사님의 사임 이후 대구제일교회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모시기 위한 염속하고도 중대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당회는 기도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청빙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본 위원회는 약 8개월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사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부재 속에서도 교우 여러분은 모든 공예배와 각종 모임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청빙위원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신뢰와 기도는 청빙위원회의 사역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7일, 당회는 만장일치로 김준호 목사님을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날 12월 8일 주일의 제직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김준호 목사님을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결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청빙위원회 구성과 운영 원칙

청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당회원: 임병규, 이문희, 이재정, 이현우, 이준옥 장로

· 자치회 대표: 이송애 권사(권사회 회장), 정청기 안수집사(청년1부 부장)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청빙 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운영 원칙을 엄격히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비밀 유지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위원들은 배우자 및 가족에게도 청빙 관련 사항을 공유하지 않기로 서약하였고, 모든 후보자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개별 위원 간 이견이 있으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한마음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셋째, 대외 소통 일원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외부에 공식적인 발언이나 설명은 위원장 1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루머 발생을 방지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원칙 아래 청빙위원회는 모든 후보자 심사와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3. 청빙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먼저 6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걸쳐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수는 654명이었으며, 각 문항의 1위 항목은 ① 담임목사 연령대: 51~55세 (43.57%), ② 목회 경력: 10년 이상(46.94%), ③ 덕목: 인품과 성품(32.50%), ④ 중요 역할: 말씀 사역(34.00%)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청빙 공고문을 작성하였으며, 추후 청빙 과정에서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4. 추천과 공모를 병행한 청빙 절차

청빙위원회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폭넓은 후보자 검토를 위하여 추천 청빙과 공모 청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공모 청빙은 2024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국내외 주요 신학교 및 교계 언론과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담임목사 청빙 공고를 내었습

니다. 그 결과 총 43명의 목회자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현직 담임목사가 23명, 부목사 및 선교사 등은 20명이었습니다.

· 추천 청빙은 교계 지도자 및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6명의 타 교회 위임 목사를 후보로 검토하였습니다.

청빙위원회는 공모 지원자와 추천 후보자를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공모 지원자 43명 중에서 1차 서류 심사 후 6인을 선발하여 2차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 및 평판 조회 결과, 공모 후보 중 최종적으로 단 1명만이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 추천을 통해 검토한 3명의 후보자와도 접촉하였으나 모두 고사하였으며, 결국 공모를 통해 남은 최종 1인을 추천 청빙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하여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청빙이 특정 개인의 결정이나 선호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필요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5. 김준호 목사님 청빙 심사 및 최종 확정 경과

청빙위원회는 최종 후보로 선정된 김준호 목사님에 대해 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김준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경력과 사역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1970년생으로, 정년(65세)까지 약 11년간 시무할 수 있으시며, 부목사 8년, 담임목사 14년 8개월(미국 마이애미중앙교회, 휴스턴영락장로교회) 등 총 22년 이상의 목회 경력자입니다.

학력 면에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예배와설교학 석사 학위를,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목사 안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동노회에서 받으셨습니다. 이후 미국 PCUSA 교단 소속으로 오랜 기간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통해 성실성과 영성을 함께 갖춘 목회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매일 '오늘의 말씀'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성도들과 나누는 등, 말씀 중심 목회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교회 중심의 목회 생활, 성도 사랑, 투철한 목회적 책임 의식이 그의 목회 이력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앙적 입장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김 목사님은 PCUSA 내 동성애 승인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한국에서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소망 역시 한국 사역 결심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목회자로서의 신앙 가치와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모님을 통한 간접적인 목사님 평가에서는, "항상 자녀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고 강조하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단지 설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평판 조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총회 관계자, PCUSA 연금재단 실무자, 동료 목회자 및 서울의 전임교회 장로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김 목사님의 인품, 성실성, 재정 청렴성, 사교성 등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검증 과정을 마친 후, 2024년 12월 7일 당회와 12월 8일 제직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준호 목사님의 담임목사 청빙을 결의하였습니다.

다. 부임은 미국에서의 모든 정리를 마치고 2025년 2월 1일자로 하시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청빙위원회는 김준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목회자임을 확신하며 당회와 교우 여러분 앞에 추천하였습니다.

맺는 말씀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청빙위원회는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기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김준호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청빙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일임을 믿고, 김준호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청빙 과정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와 함께 140년을 향한 대구제일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기도로 협력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물대동산





Part. I

명랑청년,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되다...

- 목회비전, 여러 세대가 연합하는 목회

일시: 2025년 4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이스트힐 별실

약속한 2시가 되기 조금 전, 목사님과 사모님이 밝은 얼굴로 나타나셨다.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며 모두 자리에 앉았다. 부임하신지 이제 2달 남짓. 아직 교회 사정을 다 파악하지 못하여 이 인터뷰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도 목사님은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여러 질문에 답해 주셨다.

Q1. 목사님의 고향, 가족관계, 어린 시절, 교회학교 생활, 결혼과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1970년 8월 7일 대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제가 세 살 때 아버지가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가신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7년간 울산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현대중공업을 은퇴하신 후 신학을 공부하시고, 젊은 목회자들이 사역하길 꺼리는 경주 시골에 있는 사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다가 정년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대전에 계십니다.

저는 교회 아동부와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 사역에 대한 소명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위해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확



실하다는 고백을 하였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7년 2월 27일 서울장신대학에서 함께 신학을 전공한 김정아씨(교회학교 전도사 역임)와 결혼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피곤해서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앞자리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처음으로 제 미래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착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모님의 말씀: 사모님은 목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다른 신학생들과 달리 너무나 해맑고 명랑하셨는데, 그 점이 마음에 들어 먼저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4개월 정도 만난 후, 사모님은 목사님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고 또 함께 목회의 길을 걸을 계획이면 불필요한 연애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자녀들도 빨리 낳는다면 목회의 바쁜 길에 들어설 때 훨씬 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고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두 분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하였다고 한다.] 현재 저희 부부는 딸 '은영(Esther)'(27세)과 아들 '지명(Joseph)'(25세)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4년 1월에 LA 소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Th.M)에서 공부하기 위해 가게 되었고, 이어 2004년 12월부터 조지아 애틀랜타에 있는 '애틀랜타 새교회(New Church of Atlanta)'에서 부목사로 6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에 마이애미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로 6년을, 2016년 3월에 휴스턴 영락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대구제일교회로 부임하기 까지 9년을 섬겼습니다.

Q2. 목사님이 대구제일교회에 오시기로 결심을 하신게 된 특별한 이유와 동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신앙생활과 목회를 배웠습니다. 비록 20년간 이민목회를 하였지만 늘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민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하였고, 고령자 비율이 높아 역동성이 떨어지는 직전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보다 나은 사역지를 기도할 때 마침 대구제일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시대에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보



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청빙에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몇 해 전 뇌출혈로 인해서 장애가 있으신데, 먼 거리에 있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를 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더 자주 찾아뵙면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Q3. 대구제일교회에 오시면서 특별히 다짐하신 목회 비전이나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구제일교회에 19세기 말 초기 선교사의 마음으로 부임하였습니다. 132년 전 맥코믹 신학교(시카고 소재) 출신의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대구제일교회에,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미국 장로교 소속의 목회자인 제가 부임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제일교회가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는 일을 돕는 초기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보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각오로 목회의 현장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사시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초기 선교사의 선교적, 역사적 비전을 담은 설교를 계획하고 절기에 맞는 설교(고난주간-마태복음 등)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요일 배에서 사무엘상·하를 다루는 것도 역사 속 하나님이 오늘날 대구제일교회에서도 섭리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한편 설교와 목회의 현장에 동행하며 저의 설교, 말씨,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아내에게 늘 감사한 빛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목회비전

첫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애틀랜타 새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담임목사께서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 행복해지고, 목사님도 교회를 통해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대구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그 열매를 보며 저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목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가 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건이 허락된다면 청년부 예배를 본당으로 옮겨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과 금요기도회를 뜨거운 교회의 심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섬김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오랜 목회를 통해 세대 갈등과 가정의 문제, 목회자와 직분자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인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섬길 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기는 저를 교인들이 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새벽기도, 예배, 봉사 등)에 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새로이 등록된 분을 비롯하여 가급적 많은 분들을 심방하고, 많은 부서와 자치 조직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대구제일교회의 부흥을 위해 항존직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첫째로 저는 목회자의 리더십은 예전에 보여주던 '제왕적(주도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코칭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사역을 잘하는지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존직들과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 코칭해 주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장년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미래는 역시 다음 세대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잘 양육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가지게 되는 영적 부담감 가운데 하나가 사데교회 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1)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겉만 그럴듯하지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본다면, 살아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력(에너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잘 세워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세대가 연합하는 목회

- (1)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이 선교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는 헌신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탐탁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려 합니다.
- (2) 예배와 선교 등 여러 사역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역들을 늘려 가려 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특히 단기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김에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려 합니다. 세대가 잘 연합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 (3)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 세대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 간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소신껏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목사가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신뢰는 연합을 통한 부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Q5. 자녀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탈무드는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인 신앙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의 행동, 말, 습관, 심지어는 부모의 식성까지도 닮아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님의 신앙고백을 보면서 자신들도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자녀들 역시 위기의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다 잘되길 바라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신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자녀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

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기도’입니다. 부모의 첫째 사명은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비록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와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제목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금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Q6. 목사님은 미래 세대의 양육을 강조하셨는데요,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향해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교사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됨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일을 함에도 교회적인 관심에서 소외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모든 봉사가 귀하지만,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 속에 교사의 사명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교사의 으뜸 사명은 역시 ‘구원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복

음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구체적으로 교사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고(복음), 그 복음(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르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Q7. 지난 목회 중 인상에 남는 추억,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깊게 남는 저의 추억 중 하나는 저와 아내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04년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고 온 미국 유학 생활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외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 온 유학이다 보니 이전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아파트 렌트비와 가구 등을 사고 나니 통장에는 단 돈 5불이 남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내는 3일 만에 LA 중심가 식당의 주방 헬퍼로 일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오전과 저녁에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불평이나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의 생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의지할 이 아무도 없었기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부르셨기에 미국 땅에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을 겪었기에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설교를 할 때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대동산



· 취재 및 사진: 강영우, 박문호, 곽지예, 안지현, 이정규, 이필형 목사, 최무진, 허군열
· 위촉기자: 이금환, 이수경



Part. II

새가족부를 소개합니다.

대구제일교회의 모든 부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을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부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전선에서 새신자를 맞이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새가족부는 고결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 갖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아홉 시부터 찬송과 말씀 그리고 광고와 기도 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호로 마무리하는 경건회를 갖습니다. 반가운 부서원들과 주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권면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각자의 얼굴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새신자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전파하고자 노력합니다.

새가족을 위한 교육은 2부 예배 후 본당 2층에서 찬송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총 6주간 교육 중 5주간 강의는 매주별 교과 내용을 담당하는 장부 2명의 강사가 진행하며 6주 교육은 지도 목사께서 인도하십니다. 외국인 전담 강사 또한 봉사를 하십니다. 교육을 마친 새가족은 주일 낮 예배에서 “환영” 인사를 하고 곧이어 새가족부실에서



에서 담임목사님과 면담과 기념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등록 교인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환영 등록 후 우리 교회 교인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6주 교육 중에 새가족이 속한 구역과 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새가족에게 필요한 지원과 배려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하나님 영접이라는 지상 최고의 선물을 주는 일에 새가족부가 교육과 섬김으로 시작한 일이 온전하게 열매 맺도록 동역하는 여러 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새가족부를 찾아와서 접견을 하면 그분의 연령과 성별, 거주지와 믿음 생활 이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마치는 순간까지 영적 동행을 지원할 최적의 바나바를 선정하여 믿음의 사슬로 맺어 줍니다.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바나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20명의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새가족부는 황천호 목사님과 김숙자 전도사님을 지도 교역자로 모시고 영적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 경건회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채워 주



시는 목사님과 힘들고 어려운 새가족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해 주시는 전도사님의 영적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안내/친교, 접견과 지원, 강사와 바나바 팀으로 새가족부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부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에 부부장, 총무, 회계 집사님의 한결같은 봉사를 모든 부서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와 퍼스트 스텝, 교회 역사관 투어와 수련회 등 새가족부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얼굴들에서 신실한 교재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부원과 주고받은 높은 사랑의 밀도 때문에 새가족들에게 쏟는 사랑의 밀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깊은 관심으로 새가족부의 미래 향해가 순풍에 돛 단 듯합니다. 소망 가운데 더 많은 새신자를 접견하여 6주간 교육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환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역에 새가족부 모든 지체가 한마음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부원들의 새가족에 대한 열정과 봉사가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새가족부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새가족과 함께 봉사하면서 모두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인터뷰하다 (환영과 목양을 위한 메시지)

새가족부 인터뷰는 환영받는 따뜻한 느낌으로 시작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성찰의 자리였다. 새가족부 부장 장로님의 글에도 교회와 부서 구성원들이 함께 충성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였고, 그 사랑이 촘촘하게 맞물린 교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토양을 바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새가족 정착 시스템과 관리 방안'에 더욱 주목하였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목양 사역이 가능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새가족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새가족들이 끝까지 이 여정을 행복하고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그리고 성도들은 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나아가 세상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문대동산

새가족 정착 시스템과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볼 것!

- 새가족 6주 교육 후 목양부 외에도 다른 부서 간의 연계 강화 및 정착 지원의 필요성
- 새가족 등록의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및 출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 취재 및 사진: 곽수영, 곽지예, 강영우, 김미진, 양선미, 우제오
이영숙 홍보부 A조 취재단
본 원고는 새가족부 부장 강이철 장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Part. III

친교봉사부를 소개합니다.



늘 대구제일교회 식당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친교봉사부원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친교봉사부를 널리 알려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바램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친교봉사부의 주요 일들과 조직 구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봉사부의 주요업무는 교회 내 구제와 친교행사 활동에 따른 기획과 주관, 교회식당 봉사에 따른 운영을 담당합니다. 조직구성엔 친교봉사부 임원단과 책임봉사자, 4개 교구 교구장 및 구역장,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최근에 교회 식당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라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교회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원도우 뷰를 지닌 교회식당을 주일날 밥한번 먹는 공간으로 묵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친교봉사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교회본당을 향한 창가 테이블을 새단장하여 커피나 음료 식사와 간식을 즐길수 있는 분위기의 우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반대편 시내방향 창가 테이블도 바텐의자로 시내방향을 조망하며 스터디존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당 상부 조명을 따듯한 분위기의 미색조명으로 바꾸고 조명의 강도를 높여 밝고 따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식당 활용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수 집사회와 교육부의 협조로 작년에는 슬러시 기계, 올해에는 라면기계를 감사히 기증받아 친구세대가 재미있고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식당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매주 교회 식당에서는 몇 인분 정도를 준비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그 식당의 준비과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교회식당은 기본적으로 9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배부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주시는 예배 참석 인원과 식당 메뉴의 인기도에 따라 식수 인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김준호 담임 목사님이 오신 후 꾸준히 식수 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최대 식수 인원은 1,300명으로 작년 교구 만남의 주일 행사가 식당에서 있던 주일이었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경제적인 제약이 많지만 식당은 일반적으로 1식 3찬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은 (월, 화) 일반재료주문, (목, 금) 배송된 재료 검수와 신선을 요하는 재료 직접구매, (토) 국거리와 반찬 재료 다듬기, (주일) 오전 조리과 배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4. 3부예배 마치고 좀 늦으면 식사가 부족하여 못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친교봉사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교회식당의 배식시간은 1시 30분까지입니다. 오후 예배 전까지 설거지와 정리, 청소까지 마쳐야 하므로 배식 인원이 줄어들면 커튼을 내리고 정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내려져 있어도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예배 인원과 식사 인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밥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분이면 다시 밥을 지을 수 있고 햇반도 예비로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밥이 모자라는 일이 몇 번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배식시간이 끝날 시간인 1시 30분경 거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밥이 부족하여 식사를 못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교회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이 혹 있을까요?

교회 식당의 힘든 점은 식사 후 퇴식기가 몰려나오는 2부 후(11:00~11:15) 및 3부 후(12:50~13:10)의 15분 내지 20분입니다. 이 때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잔반통, 수저통이 따로 있고 접시와 국그릇이 애벌 설거지를 위하여 따로 쌓여있는 것을 보시고도 접시 위에 국물 등의 잔반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태로 다른 접시 위에 포개어 두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두세 분만 계시면 애벌 설거지 봉사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뒤죽박죽 쌓인 접시와 국그릇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접시 위에 잔반과 수저, 국그릇, 컵까지 올려서 정신없는 봉사자의 손에 쥐어주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잔반은 잔반통에, 접시는 접시 위에, 국그릇은 국그릇 위에, 수저는 수저통에 차례대로 천천히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시간에 식당 봉사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계속 도와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단 5분씩, 10분씩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교회 식당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서비스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가 오히려 교회의 서비스를 이기적으로 소비만 하려 한다면, 주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듯 선한 언행과 중보의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기를 소망합니다.

6. 교회 식당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여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하는 요즘 시대에 교회식당 봉사를 억지로 하느니 외부 업체에 맡기자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땀나고 힘들고 빛나지 않는 어려운 봉사를 모두가 기피하고 멀리한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봉사를 하나씩 없애고 특정 친교 모임과 교회가 누릴 서비스를 위한 회의나 성경공부만 하자고 주장한다면 찬양연습도 힘들고 어려우니 외부업체에 맡기고 새벽기도도 외부업체에 맡기게 되지 않을까요.

7. 교회에서 운동회 한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혹, 올해 운동회는 계획되어 있나요? 2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친교봉사부 관련 교회 행사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 운동회와 교구 만남의 날을 번갈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전교인 운동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담임목사님의 부재로 어수선한 시기에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교구 만남의 날이 편성된 해로서 가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앞으로의 친교봉사부 일과 계획과 관련해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땀흘리는 손길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족히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문대동산



- ▶ 저 자 : 래리 오스본
- ▶ 옮긴이 : 정성목
- ▶ 출판사 : 두란노서원
- ▶ 출판일 : 2015년 7월 20일

저자 래리 오스본(Larry Osborne)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10대 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노스코스트교회(North Coast Church, 캘리포니아 주 비스타 소재)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128명이 모여 한 고등학교 구내 식당을 빌려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 노스코스트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에 만 명가량의 성도가 출석하는 멀티사이트 교회로 성장했다.

래리 오스본은 특히 리더십과 영적 성장, 제자 훈련 분야에 열정을 품었다. 목회 활동 외에도 교회 안팎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리더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돕는 리더십 컨설턴트의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리더와 목사,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여러 컨퍼런스에서 강연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당신의 열심이 위대한 이유》(새물결플러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 《일상을 걷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상 디모데) 등 다수의 책을 썼다. 블로그(LarryOsborneLive.com)를 통해서도 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탈봇신학교(Talbo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내 낸시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 오션사이드에서 살고 있으며, 슬하에 결혼한 세 자녀가 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금요 기도회 설교 때 이 책을 잠시 언급했다가 이 책 리뷰까지 쓰게 되었다. 설교만으로 은혜가 안 되니 더 잘 알려달라는 소리 같아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리뷰를 쓴다. 그래도 좋은 책을 함께 나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만큼 값진 일도 없을 것 같다. 이 책은 미국의 노스코스트교회 래리 오스본 목사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하여 쓴 책이다. 다니엘서를 강해하지 않고 다니엘의 삶과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가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고백하고 있다.

이 책은 다니엘의 세 가지 성품에 집중한다. ‘소망’과 ‘겸손’과 ‘지혜’다. 다니엘은 이 소망과 겸손과 지혜로 용기와 신뢰와 넓은 시각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현실을 돌파해 나갔다. 다니엘의 시대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했던, 거기다 비이성적이고 악랄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그때 다니엘은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던 죄 때문에 끌려가 모진 시련을 당하였다. 책에서는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다고 말한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문서나 정황은 다니엘이 거세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 악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성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다니엘이 세 가지 성품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악이 넘쳐나는 고난의 훈련소를 지나왔기에 가능했다. 저자는 이 고난의 훈련소를 지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난을 겪지 않는 자들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난의 훈련소를 통해 다니엘은 세 가지 성품을 얻었다. 먼저 다니엘은 소망의 사람이었다. 그의 소망은 순종을 통해 이룬 열매였다. 순종이 쌓여 소망을 이룬 다니엘은 바벨론 앞에서도 용

기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겸손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났다. 적까지도 섬겨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을 분별하였다. 지혜는 하나님을 집중할 때 세상이 볼 수 없는 시각을 볼 수 있게 된다.

점점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도 소망과 겸손과 지혜를 품어 다니엘처럼 그 어떤 세상의 악의 위협이 있더라도 순결하게 그리고 맞서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물대동산**

출판사 서평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몸담은 가정, 동네, 직장, 교회, 사회를 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가? "말세야, 말세.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어." 표현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깊은 한숨이 미디어와 SNS를 점령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상황을 개탄하고, '그때'가 좋았더라며 분통빚으로 포장한 과거를 계속해서 회상하고,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지'라고 원인을 분석하며 속상해 하느라 시간을 보낸다. 어디에도 출구는 없는가? 최악으로 얹히고설킨 현실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가야 할 방향을 찾는 이들을 위해, 래리 오스본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 급격한 변화와 불경건으로 대변되는 사회에서 살아야만 했던 성경 속 한 남자의 이야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책을 통해 속마음을 허심탄화하게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자세를 점검하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현실이 너무 처참해서 절망해 있다면 바로 당신을 위한 책이다.

다니엘의 세 품성에 주목하다

흔히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극렬하게 타는 불무불에서도 탈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 나온 모험 스토리나, 해석이 분분한 난해한 예언서로서의 접근은 이 책에서는 잠시 접어 두자. 대신 저자는 다니엘이 당대 최고 강대국이자 동시에 악의 종결자였던 바벨론에 사는 동안 끝까지 견지했던 세 가지 품성에 주목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말한다.

래리 오스본이 이 책에서 다루는 다니엘의 세 품성은 소망과 겸손, 지혜다. '성경적 소망'은 세상에 맞설 용기를 주고, '성경적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게 하며, '성경적 지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한다.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실제로 이 품성을 살아 낼 때, 이 용어들은 성경책 속에 박제된 진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실재하는 능력이 된다.

생존에서 번성으로!

매일매일이 전쟁 같다. 교계에도 민감한 핫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양극단의 중간 경계선에 서서, 이 사안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안에는 저 노선을 선택하라고 일일이 기준점을 제시하며 명쾌한 정답을 달아주기를 이 책에서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저자조차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100퍼센트 옳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니엘이 걸여간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걱정, 낙심을 떨쳐 내자. 더는 아등바등 살아남는(surviving) 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예병으로서 번성(thriving)하자.

목차

추천의 글

Part 1.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1. 계속해서 시대를 탓하기만 할 것인가
2.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일 수는 없다?
3.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4. 왜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이 이기게 놔두시는가

Part 2. 전쟁놀이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싸움이다

1.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2. 영적 기만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3.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서라

Part 3. 소망으로 무장하라, 세상에 맞설 용기를 얻을 것이다

1. 소망은 순종의 한 발자국에서 시작된다
2. 오늘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3. 생각의 입력이 감정의 출력을 정한다
4. 소망의 적, 영적 근시안과 건망증을 치료하라
5. '대체 소망'은 환멸만 남긴다

Part 4. 겸손으로 무장하라, 타인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1.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
2. 가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라
3. 잃은 양들을 구원하는 것이 초점이다

Part 5. 지혜로 무장하라, 전체를 보는 시각을 얻을 것이다

1. '집중할 것'과 '포기할 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다
2. 세상에 오염될까 지나치게 겁내지 말라
3. 누구도 다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다
4. 당장 이기고 지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윤길규 협동안수집사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방문한 한 유럽의 인류학자가 사탕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서 어린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는 곳에 가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높은 나무까지 먼저 도착하는 아이에게 이 사탕 바구니를 통째로 주겠다 하고는 높은 나무 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들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먼저 뛰어오는 아이 하나 없이 이상하게 모두 손을 잡고 천천히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높은 나무 밑에 도착한 아이들에게 그 인류학자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제일 먼저 달려와야 사탕 바구니를 혼자 독차지할 수가 있는데, 왜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온 거니?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같이 큰 목소리로 ‘우분투’라고 대답하었어요. 그리고는 애들이 쑥덕쑥덕하더니 사탕을 다 나누어 먹은 거예요.

우분투(UBUNTU)라는 이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과 줄루족의 말로서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서로 얹혀 있음을 잘 알고, 확인하는 인사로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우분투’라고 말

을 합니다. 그래서 일등을 했다고 과자를 다 가져가 혼자만 먹는다면 ‘다른 애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 기뻐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의 집과 교회가 담으로 구분되는 옆집에 살면서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서로 정답게 뛰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담 너머로 바라보다 ‘나는 왜 저들처럼 교회를 다닐 수 없지’ 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엄하신 아버님은 그러는 저를 보고도 ‘교회에 갔다 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입대를 한 후 광주에서 지리산 노고단까지 약 20일간 유격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M1 소총을 매고 경사도가 일부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타러 가기 위해 깊은 산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가에는 암벽을 타고 하강하다 추락한 선배들의 비석들이 이끼가 낀 채 쓸쓸히 서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실사이 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암벽을 타야 할 곳으로 올라가는 내내 저의 마음은 불편했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생활이라고는 해 본 적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훈련 중에 저에게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를 지켜만 주신다면 부대로 복귀하는 즉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계속된 훈련에 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오로지 저만 살려달라고 매달린 이기적인 기도였지 함께한 전우들의 목숨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 22:39) 하셨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기도였고, 하물며 아프리카 ‘우분투’의 정신과도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이 엄습해 오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모든 훈련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에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교회에 등록하였고, 저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얇은 샘물은 가뭄이 올 때면 우물이 말라 바닥을 보이듯이 저의 믿음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자대로 배치받은 부대 내에는 교회가 없다는 핑계로 믿음과는 완전히 담을 쌓으며, 군대 생활도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긴 세월 동안 교회와는 거리를 두며,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하였고,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주는 삶이 오히려 축복받으며 사는 길이라는 착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은혜의 갈급함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저의 슬픈 현실을 뒤늦게 깨달으며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오 년 동안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세우신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때로는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허물은 덮어주면서 형제의 장점이 더욱 드러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23:11)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 진정 남을 섬길 수가 있으며, 서로가 하나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우분투라고 말하던 아이들처럼 하나 된 나무에 ‘믿음’이라는 물을 주면, ‘소망’이라는 싹이 자라나고,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며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과나무와사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13:13)

골목길
돌아봐야
비로소 아는
인생길에서



최진영 안수집사

나는 주말마다 포항에서 수원으로 기차를 타고 오가고 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 어느덧 사계절이 지나 두 번째 봄의 포근한 정취를 느낀다. “인생이 길 위에 있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직장 때문에 삼십여 년간 포항과 대구를 오가며 주말부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아내가 손주 양육을 위해 작년에 직장에서 명예 퇴직을 한 이후, 내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사십 년 전인 1985년에도 나는 주말마다 대구와 수원을 오가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원에 취직하면서, 일요일 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졸다가 지나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원에 도착하곤 했다. 그때는 주 6일 근무였기에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대구로 돌아가 대구제일교회 예배와 청년부 집회에 참여했다. 신앙이 불타오르던 시기였기에 땀땀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지냈다. 수원에서의 삶은 내게 큰 혼란과 갈등을 안겨주었다. 신앙적이지 않은 음주 문화와 낮은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퇴근 복장 그대로 007가방을 들고 주암산 기도원에 혼자 올라갔었다. 밤늦은 시각, 기도원 관리인의 의심 어린 시선에 당혹스러웠지만, 나는 홀로 고독을 느끼며 기도했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완독하며 하나님과 인생을 걸고 씨름하던 그 시절, 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1986년 봄, 대구로 돌아와 다시 공부를 시작하

게 되었다.

대구제일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대학원 재학 중 결혼을 하였고, 1993년에는 포항의 직장에 취직하면서 지금까지 주말부부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구제일교회 청년부는 경북대학교 교수셨던 고(故) 김종택 장로님께서 이끄셨고, 이신희 장로님(당시는 집사님)이 금요 청년부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이상근 목사님의 포용적인 리더십 아래 김종택 장로님의 설교 사역이 인정받았고, 그분의 강의를 많은 청년들의 심금을 울리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이신희 장로님이 인도하시던 금요 기도회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였다.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청년 같으신 정보금 권사님께서도 청년부 기도회에 함께하시며 기도에 불을 지펴주셨다.

나는 이분들이 청년부를 떠난 이후에도 청년들의 선교훈련과 배출된 선교사들을 돕고자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 선교 사역을 이어갔고, 2019년에는 35년간의 청년부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이교육 선교사님과는 가장 오랜 시간 교제하며 사역을 나눴다. 선교사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이 선교사님은 가족의 장애라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사역을 이어가셨고, 나는 교회와의 소통을 통해 그 사역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해외 선교부를 통해 대구제일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

가, 지난 2023년 모든 대구제일교회 봉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나는 수원에 오는 새벽마다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한다. 이 시간은 사계절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다. 딸 부부가 사는 집은 마침 사십 년 전, 내가 월세 5만 원을 내고 살던 아파트 단지 옆이다. 그때 주인이었던 부부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문득 궁금해진다. 당시 잘사는 동네라던 아파트는 이제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하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어렸던 나무들은 장성하여 나와 함께 한 세월의 친구처럼 매일 새벽 나를 반겨준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후, 주님과 함께 40년을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너희도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었네. 반갑다, 친구들아.” 사십 년 전 퇴근길에 나를 맞아주던 버드나무는 사라졌고 그 길은 회색빛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그 길을 산책하며 지나온 시간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직접 주님을 면전에서 뵈는 적은 없지만, 지난 사십 년간 주님께 인생을 걸고 기도하며 살아온 궤적 속에서, 그분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작년 말, 우리 부부는 사위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려울 때 장인어른께서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집안의 활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식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주셨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2024년을 보내며 우리 부부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물론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우리

는 그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던 청년 시절도 있었지만, 사십 년이 지나 아내와 딸 부부, 손주와 함께 다시 수원으로 돌아온 지금,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나 역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딸의 출산과 아내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육아 보조 역할이 주어졌다. 두 가정이 한 울타리에서 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0.7명대 출산을 시대에 육아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귀한 사명이라 믿는다. 앞으로 자녀가 또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건강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 도울 예정이다. ‘할머니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감정과 언어, 요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할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할아버지보다 약 5년 정도 긴 이유가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세대의 귀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지나간 시간과 두고 온 사람들에게 대한 아쉬움 없이, “이만 하면 족하다”는 자족감을 안고,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다. 사십 년 전, 수원에서 주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던 내가,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새벽 산책 중에도 감동하여 눈물로 감사하게 된다.

골목길을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남은 인생길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 **물과 땅의 삶**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 찬송시 - 찬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



유대안 안수집사
(갈릴리찬양대 지휘자)



4월이 되면 우리는 한 세기 전 대구에 첫발을 내디딘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 선교사를 소환한다. 베어드는 한국 선교를 위

해 1891년 부산에 들어온 후 한강 이남 최초 영선교회(초량교회 1892)를 설립했고 1893년 4월 22일 대구에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대구·경북 지역 교회 설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서울을 거쳐 평양에서 숭실학당(숭실대학교 전신 1897)을 설립하는 등 선교와 교육에 전념했다.

한편, 그의 아내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는 미국 웨스턴 여자대학과 인디애나주 하노버대학, 워시번 대학에서 불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한 여성 엘리트였다. 그녀는 남편 윌리엄과 결혼한 후 한국에서 남편의 사역을 조력하는 아내 역할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안목과 문서 선교 영역에서 두

각을 나타냈다.

그녀의 저작물 중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1897)은 해방 전 제6판까지 발간하면서 50여 년간 한국어 교재로 사용했다. 그 외 『한국의 새벽』을 통해 당시 한국의 상황을 서양에 알리기도 했고 『셋별전』, 『장자로인전』, 『고영규전』 등 한글 소설과 『동물학』, 『식물도설』, 『만국통감』 등 숭실학교 교재와 『창가집』을 발간하여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니 베어드는 여러 찬송가를 번역했는데 창작곡 4곡, 번역 곡이 52곡에 이른다. 번역 실력을 인정받아 미북 장로교 선교부 출판 『찬성시』(1898, 1902)와 감리회 연합찬송가 『찬송가』(1908)의 편집 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가 대학에서 어문학을 전공하였고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한 번역과 한국음악 특성인 5음계 선율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녀가 작시한 찬송가 387장 <멀리멀리 갔더니>의 작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베어드 부부가 부산에 도착한 이듬해 첫딸 낸시 로즈(Nancy Rose 1892~1894)가 태어났다. 하지만 두 돌이 채 되기 전 낸시는 뇌수막염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부산 북병산 외인 묘지에 안장). 애니 베어드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을 찬송시로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

“멀리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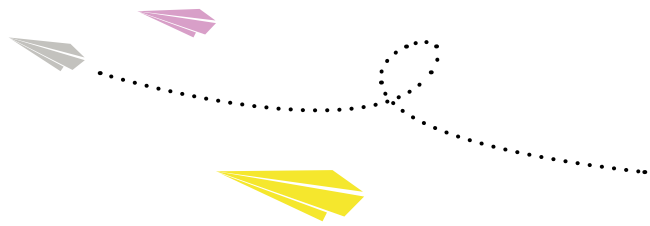
“예수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이 찬송가의 원 작시자는 윌리엄 맥도날드(William McDonald)로 <I am coming to the cross(십자가로 나옵니다)>인데 애니 베어드는 <I have wander'd far indeed! (멀리멀리 갔더니)>로 개작하여 1895년에 수록했다. 오늘날 이 찬송을 회심과 관련지어 부르나 실제로 이 곡은 베어드 부부가 선교지 한국 땅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담은 것이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 역시 그녀의 찬송시로 역경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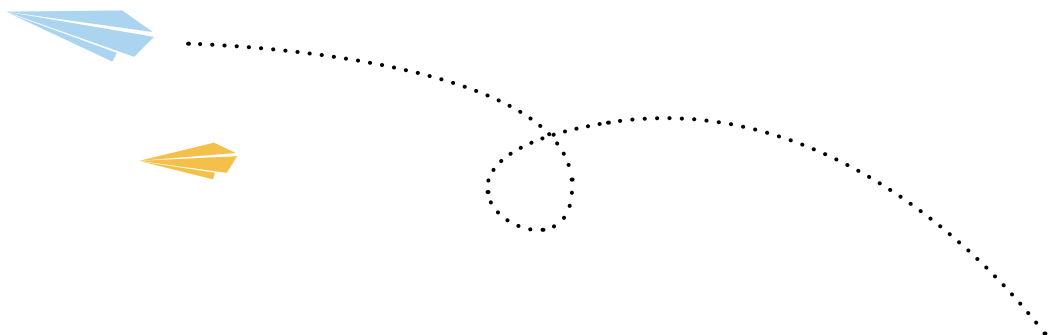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눈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 문태동산



2010년 어린이주일 _ 교회학교 어린이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 2)



변정자 은퇴권사

기쁨은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이 기쁨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죄와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헛수고로 끝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에 그 기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이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기념비에는 웨슬리가 임종 시에 남긴 세 가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고 늘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과 아름다움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에 4:16)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탈 때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느 1:3-4)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동족을 위해 울었습니다. 한 사람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 바빌론에 잡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한 사람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큰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 주님으로 하여금 큰일을 하게 하신 예들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사 43:2).

하나님께 속한 이는,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을 압니다. 실제로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관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희망의 나날을 보내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는, 좌절하고 한탄하고 비관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 생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부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차별화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일 ‘차별화’를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끝없는 경쟁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나로 하여금 나만의 차별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동질성’으로 살게 합니다. 이 공통분모가 개개인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여도 공통분모로 뭉친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됩니다. 경쟁이 아닌 공흥로 함께 사명을 실천합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의 삶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거하여 나를 깊이 경험하라는 말씀의 의미와 그 안에 약속된 복된 경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분과의 연합이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 그 사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하며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부지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도 바울도 당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술선수범하며, 어떤 일이든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다른 이에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있는지 바로 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끝에 결국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행 18: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 위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입니다.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자, 가장 나쁜 자, 가장 방탕한 술주정뱅이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 할 때 이 말씀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에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혼에 대한 생명의 메신저로 안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중생하지 못했으나, 그들은 반드시 중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영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에게 갈 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외로울까요? 나를 아끼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한치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쓸쓸한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내 마음을 꺼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노후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면서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물대동산



믿음으로써 의(義)로워져 구원을 받으면, 선(善)한 일에 힘써야 한다



권중웅 명예집사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마태 5:15-16)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에베소 2:8-10)

위의 본문 말씀을 종합적으로 풀이하면서 여러 가지의 설명까지 덧붙여 이 글을 쓰자 한다. 믿음으로써 의(義)로워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身分)을 얻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선(善)한 일을 힘써 나가야 한다. 선한 행동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善)하시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의(義)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건, 기독교의 핵

심적인 교리(敎理)다. 의로워진 사람은 으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문의 ‘착한 행실’은 선행(善行)을 뜻한다. 영어 성경에도 ‘착한 행실’을 “the good things you do”라고 번역했다. 이는 “당신이 하는 좋은 일들”이라는 뜻으로, 좋은 일은 선하고 착한 일을 지칭한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한 선행으로 빛 된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다시 말해 착한 행실(行實)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유(理由)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본문의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심도(深度) 있게 강조하신다. 사랑을 실천하면 선행이 된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다.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失足)하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

이라고 경고하신 일도, 소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돌보라는 말씀이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병든 자 곧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는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셨다(마태 25:31-46). 예수님께서 소자를 자신과 동일시(同一視)하신 것은, 소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傍證)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여 선(善)을 이루는 건, 크리스천에게는 귀중한 덕목(德目)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을 받더라도, 어느 날부터 사랑의 실천에는 무관심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을 수도 있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선한 일을 도모(圖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기독교의 선행은 복(福)을 받기 위한, 세상의 단순한 선행과는 다르게, 의(義)로움에서 분출(噴出)되는 선행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正體性)을 확보(確保)하는 선행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善)을 행하고, 거룩하게 변화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론(聖化論)이라고 한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사랑의 실천으로써 거룩하게 변화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者)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록했다(베전 1:15-16).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善)한 일에 힘써야 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떠올려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성실히 반응(反應)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行爲)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베전1:17). 물대동산

*참고 문헌 : Good News for Modern Man. American Bible Society, 1966.

찬양에 대한 체험적 간증

이 글은 제가 찬양대 지휘자로서 27여 년, 찬양대원으로서 37여 년간 겪고 느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恩賜)의 체험으로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행4:20, 히13:15).



우정복 원로장로

1. 찬양과 찬양 교육에 대한 고백과 소회

1. 찬양의 단계별 체험 고백

가. 첫째 단계(20여 년) : 음악적 기법으로 찬양을 드린 기간

- (1) 찬송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 (2)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과 가깝게 되어, 개인 작곡 발표, 위촉 곡 발표 등 세속적 음악 기법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성 찬양곡과 자작곡 등을 찬양대에서 지휘하였습니다.
- (3) 음악 발표회 성격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4) 찬양 후 얻는 것은 자기만족이나 자기도취 정도의 성과이며 이 기간동안 찬양을 통하여 맹목적인 개인의 감동이나 스스로의 감격과 자신의 만족에 도취한 경험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 (5) 이 단계에 머물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에 한계가 있게 되므로 이 단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둘째 단계(38여 년) : 신학적 형식의 찬양을 드린 기간

- (1)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찬양대 수련회, 찬송에 대한 책자, 설교 등에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내가 바라는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2) 결국 성경 말씀에서 찾기로 결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종합하여 본 결과, 찬송의 이유, 찬송의 방법, 내용에 따라 달리하여야 할 찬송 등을 깨달으며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단계의 찬양에서는 당연히 형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형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에서 형식은 내용과 실질을 담는 중요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이때부터 조금씩 주제별로 글을 정리하여 대구제일교회 「물댄동산」, 대구 장로합창단의 단보인 「찬양하는 순례자」, 「음악 전문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 또 찬송의 교재인 「찬송을 하나님께」와 성경 도우미인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의 도서를 발간하였고 이를 모임 등에서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II. 찬송은 이렇게>에서 정리한 것과 같은 내용을 알고 찬송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셋째 단계(6여 년) : 마음을 드리는 찬양 기간

- (1)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히13:15, 호14:2 등)이므로 찬송은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 (2) 찬송은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 (3) 이 단계가 찬양에서 가장 바람직한 단계입니다.
- (4) 이 단계는 신학적 형식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 (5) 이 단계에서는 자기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며, 참회(懺悔)의 마음이 공감되는 기도와 같은 단계입니다.

2. 교회와 신학교 찬양 교육에 대한 소회(所懷)

가. 신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 (1) 신학교 교육과정에서 찬송을 이해하는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 (2) 신학교 교육과정에서 찬송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신학대 ○총장).

나. 찬양 지도자 양성 현실에 대하여

- (1) 찬양 지도자 양성은 대부분 외부의 사설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 사설 기관의 교육 방법이나 교육과정은 대체로 세속적 음악 기법으로 새로운 복음 찬송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연주하기 위한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복음) 곡 음반(disk) 등을 제작하여 교육하거나 보급하는 방법이 주가 됩니다.
- (3) 사설 기관은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신학생들을 수강생으로 모집하여 그 연수 과정을 거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주어 찬양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음이 대체적인 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 찬양 지도자 양성 현실과 교회에의 영향

- (1)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 인도 목회자를 따로 두거나 찬양을 전담하는 목회자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2) 각 교회에 부임하거나 채용되는 찬양 전담 목회자들은 주로 사설 기관에서 양성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도 공인된 찬송가보다는 공인되지 않은 찬송(복음)가 등을 주로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3. 가정예배 찬양의 체험적 고백

- (1) 음악적 기법의 찬양을 하는 단계에서는 찬송가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대로 일회에 3~5곡씩을 찬양하였습니다. 찬송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찬송을 하며 즐거워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소위 찬양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 (2) 음악적 기법의 찬양을 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찬송의 근거와 이유, 목적 등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신학적 형식의 찬양을 드리는 단계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적 형식의 찬양 단계에 접어들기 위하여 찬송가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3~5곡씩을 선정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 (3) 결국 찬송은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부터는 3곡씩을 지정하여 오랜 기간 외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II. 찬송의 진정한 이해

1. 찬송의 성경적 근거와 해석

여호와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43:21, 시148:5)

가.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 ▶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나. 찬송을 받을 대상

- ▶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 찬송을 드리는 목적

- ▶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림에 있습니다.

라. 찬송으로 드려야 할 내용

- ▶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사43:21)입니다. 즉,
-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과 그의 거룩하심(시99:3, 시148:5, 13)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시107:8, 21, 31)
 - 그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단2:20)
 - 그의 은혜와 영광(엡1:6)
 -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시150:2)
 - 주께서 행하시는 일(시145:4)
 - 구원의 역사(벧전1:3, 눅1:68-71, 시68:19, 출15:2) 등입니다.

마. 찬송의 마무리

- ▶ 아멘으로 순종을 맹세합니다.(시106:48, 느8:6, 시41:13, 롬1:25).

2. 찬송이 가지는 의미

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히13:15, 호14:2 등)입니다.

찬송은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송은 곧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나. 찬송은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찬송은 말씀에 곡조를 붙였으므로 곡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찬송을 장난삼아 부르거나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不敬)스러운 것입니다.

다. 찬송은 찬송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찬송은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드릴 때는 오직 찬송에만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여야 합니다.

3. 예배나 신앙 집회 시 드리는 찬송의 분류(例)¹⁾

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찬송 :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 (1) 경배 : 2, 3, 4, 6, 8, 13, 14, 25, 27, 32, 33, 34, 38...장 등
- (2) 찬양 : 1, 5, 12, 16, 17, 18, 19, 20, 21, 22, 23, 29...장 등
- (3) 감사 : 427, 428(간중), 429(위로), 592(권면), 594...장 등
- (4) 간구 : 9, 10, 15, 28, 35, 44, 53, 54, 55, 56, 58, 60...장 등
- (5) 고백 : 228, 229(권면), 250, 260, 263, 272, 275, 282...장 등

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찬송 : 복음의 노래로 은혜와 복받음입니다.

- (1) 전도 : 70, 91, 124, 134, 147, 179, 185, 200, 237, 251...장 등
- (2) 다짐 : 36, 49, 50, 143, 146, 148, 149, 150, 211, 215...장 등
- (3) 간중 : 94(확신), 151, 162, 171, 172, 182, 191, 202...장 등
- (4) 권면 : 26, 42, 125, 175, 176, 177, 180, 204, 210, 217...장 등
- (5) 확신 : 73, 81, 199, 234, 236, 240, 242, 243, 245, 246...장 등
- (6) 위로 : 112, 235, 241, 291, 312, 337, 342, 382, 383...장 등

다. 하나님 또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한 찬송

- 311장, 382장 등 복음의 노래 중 '너는 내 아들이라'(시2:7)... 등

라. 성경 말씀의 찬송

- 588, 427장... 등

마. 행사를 위한 찬송

- 579, 580, 622장... 등

III. 예배에서의 설교와 찬송의 이해²⁾

1. 설교

가. 설교할 자격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바르게 선포하여야 합니다(총회 헌법 제4편 제2장 2-1-2-5).

나. 설교의 위임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이 없이는 설교를 허락하지 아니한다(2-1-2-8).

2. 찬송

가. 주일 공식 예배

- (1) 찬송은 교회 전통에서 공인된 것을 부르도록 한다(2-1-3-5).
- (2) 총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찬송을 공식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 교육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3) 예배 시에 부를 찬송가 선정도 위의 분류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공식 예배가 아닌 신앙적 집회

- (1) 공인되지 않은 찬송의 경우도 신앙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찬송도 있으므로 공식 예배가 아닌 집회에서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1-3-5).
- (2) 공인되지 않은 찬송가는 '찬송가 선정위원회' 등에서 엄선하여 <부록> 등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提言)합니다.

다. 찬송의 가사가 올바라야 한다.

- (1) 우리는 흔히 찬송의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한 표현인 것처럼 여기면서 찬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찬송의 가사 표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지시·명령형의 표현은(하라, 등) 능동형으로 바꾸어 표현하여야 하고(합니다, 등) 또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우리이므로 이인칭(너, 내가, 너희 등) 등으로 된 가사의 표현은 일인칭(나, 내가)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온 회중은 이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상29:20, 시67:35, 시108:1).
- (2)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 또는 '하나님의 큰(크신) 복' 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물태동산

1) 본 분류는 견해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2) 근거 : 총회 헌법 제4편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나의 찬양 “전부”



최성민 전도사
(찬양사역, 청년부 지원)

샬롬~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대구제일교회의 132년이 넘는 역사 속에 어느덧 저도 찬양 사역을 하며 3년 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주님이 정말 대구제일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의 찬양이 점점 뜨거워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로 인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 치유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교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쁜 찬양 올려드리는 최성민 전도사가 되어야겠다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물댄동산 6월호에 찬양 한곡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전부'라는 곡인데요, 부제는 '내 감은 눈 안에'입니다. 이 곡은 유명한 CCM 가수인 소리엘이 2000년 10월 13일에 발매한 복음성가입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라 많은 후배 CCM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아래 살아갈 수 있는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맑고 따뜻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은혜, 배고프지 않



도록 많은 곡식을 땅에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를 찾지 않는 순간에도 먼저 나를 찾아주사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 그 분은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께로 향한 노래라면 더더욱 한없이 즐거워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어 드린 '전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부'를 통하여 나의 자랑,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 늘 위로받으시고, 은혜 넘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 물댄동산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찬양곡 바로듣기 ▶





네팔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최정아 집사

설을 앞두고 우연한 기회에 해외선교부의 이주원 집사님으로부터 네팔 단기 선교 여행 제의를 받게 되었다. 집안 사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여 흔쾌히 승낙하였다. 물론 출발 전까지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과연 낯설고 먼 나라 네팔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도 가득하였다.

2월 첫 주일부터 해외선교부실에 이태연 목사님, 이기덕 집사님, 김현식 집사님, 이주원 집사님, 김영숙B 권사님, 이경애C 권사님, 박선미 집사님 총 8명이 모여서 이번 네팔 선교 여행은 대구 제일교회 130주년을 기념하여 네팔에 설립한 심탈리 교회를 방문하여 어린이 선교 사역을 위주로 활동할 것으로 정했다. 어린이 사역인 만큼 이경애 권사님을 중심으로 여자팀원들이 찬양, 율동, 활동할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사역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직접 가지는 못해도 같이 동역하고자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출발일인 4월 21일, 새벽기도 후 교회마당에 모여 담임목사님의 메시지와 기도를 받고 여러 분들의 따뜻한 환송 속에 떠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비행기로 6시간 걸려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에 도착하니 밝은 어두한 저녁 무렵이었고 김정근 선교사님께서 마중을 나와 주셨다.

첫날은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 경건의 시간 후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였다. 가지고 온 짐들을 승합차로, 또 다시 트럭으로 다 옮겨 싣느라 남자 팀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다. 3시간 30분 정도 걸려 산속의 자그마한 심탈리 교회에 도착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손에 든 꽃다발을 내밀며 맞이해 주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이 여자 팀원들은 활동 준비와 교회 천장 장식을 하였고 남자 팀원들은 TV를 설치하느라 분주하였다. 영상이 나오지 않아 어수선한 틈도 있었지만 오전에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양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오후 만들기 활동을 하였는데 좁은 공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참관하는 학부모들로 실내는 열기가 가득했다.

아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여자 팀원 4명이 한 그룹씩을 맡아 네 종류의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로테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만들기 활동을 하였는데, 100여명의 아이들이 네 종류의 만들기 활동을 다 한 번씩 할 수 있게 하느라 우리의 얼굴은 상기되고 몸은 땀범벅이 되었다. 나는 에코백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맡았는데 아이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 학부모까지 같이 하기도 했다. 완성한 에코백에 후원해 주신 수건과 수세미 등 선물을 모두 담아 보내고 나니 완전 기진맥진하였다. 하지만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다는 생각에 뿌듯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두 번째 사역은 단체 놀이 활동이었다. 오전에 역시 목사님 설교 말씀, 찬양과 율동을 하였는데, 박선미 집사님이 준비한 네팔어 동요가 나오자 아이들이 따라 부르면서 몇몇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춤을 주는 것이 아닌가! 완전 감동이었다. 그야말로 네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우러지는 모습 같았다.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바랐다. 오후에 놀이활동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은 남자 팀원들이 손수 준비한 과자와 선물 꾸러미 증정 시간으로 마쳤다.



다음 날은 김정근 선교사님이 수고하시는 밀알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 교직원들과 예배를 드린 후 노트북 등을 전달하였다. 선교사님의 특수학교에 대한 열정과 네팔에 미친 영향이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 이기덕 집사님이 들려주신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까지의 간증도 은혜로웠다. 장애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도 방문하였는데 집사님이 후원하신 매트와 가전제품으로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저녁에는 교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을 쓰는 지금도 일정 내내 함께 하고 통역해 주신 네팔인 교장 선생님 SK씨와 김정근 선교사님이 세우신 꾸마르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4박 6일 동안의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선교여행은 최대한 많은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가서 올 때는 텅 빈 가방으로 돌아오는 여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수고한 우리 팀원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 문대동산





2025. 01. 06. ~ 11.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기도회



2025. 01. 23. 이선율 첫 출석
(부: 이해준, 모: 안신애)



2025. 02. 23. 김다미 첫 출석
(부: 김영훈, 모: 송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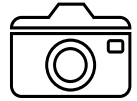
2025. 03. 02. 권하윤 첫 출석
(부: 권경수, 모: 박수진)



2025. 04. 27. 노연우 첫 출석
(부: 노요섭, 모: 박익정)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5. 05. 25. 김은유 첫 출석
(부: 김현수, 모: 추미영)



2025. 01. 12. 여전도회연합회지회
임원단수련회



2025. 01. 12. 제직수련회



2025. 01. 19. 여전도회 주일예배



2025. 02. 02 김준호 담임목사님 첫 설교





2025. 02. 23. 성찬식



2025. 02. 23. 성찬 식기 세척



2025. 02. 23. 식당 즉석 라면기
(안수집사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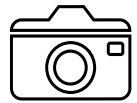
2025. 03. 02. 홍두석 선교사 선교보고



2025. 02. 28.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특별 금요기도회 저녁 8시 본당)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5. 03. 01. 삼일절 기념행사 대기총



2025. 03. 21. 제 28회 권사수련회





2025. 04. 06. 새가족부 교회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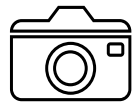
2025. 04. 13. 유아·유치부 부활절 호산나



2025. 04. 18. 성금요일 예배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5. 04. 06. 새가족부 역사관 투어



2025. 04. 11. ~ 12. 새가족부 수련회



2025. 04. 20. 부활주일 교회설립 132주년 기념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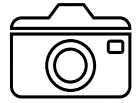
2025. 05. 04. 어린이주일(주일학교 연합예배)



2025. 05. 08. 약령시 한방축제 국내선교부, 의료선교부 전도 활동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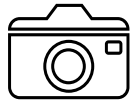


2025. 05. 04. 유아·아동 세례식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5. 05. 11. 어버이주일



2025. 05. 11. ~ 18. 안수집사 · 권사 · 장로 피택 투표 및 피택자 인사





2025. 05. 25. 가정의 달 요람 & 영정 사진찍기, 가족 & 우정 사진 찍기



* 본 사진은 랜덤으로 선별된 사진들입니다.



* 본 사진은 랜덤으로 선별된 사진들입니다.

지도목사 이필행
부 장 강영우
부 부 장 박문호
총 무 이상원
회 계 김미진
서 기 박현아

편집위원
취재기자
스튜디오
편집
발 행

곽수영 곽지예, 김원진
안주현 양선미,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군열
왕혜진, 이금환, 이수경, 전용철
우제오, 박효윤, 이정구
안지현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 화 (053) 253-2615 ~ 7
팩 스 (053) 253-2618
주 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발 행 일 2025. 06. 08.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 메 일 fch_pub@naver.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 (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장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4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3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 (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10 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란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접수 마감

2025년 09월 21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로 원고 접수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